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차재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7
----------	-------

발의연월일 : 2015. 8. .

발 의 자 : 차재홍, 서종수, 이필레, 백남환,
신종갑, 유호렬, 이학래, 김윤정,
문정애, 김효식 의원 (10명)

1. 주 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는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경의선 전철화 사업으로 지하화되어 유휴 부지로 남게 된 용산 문화체육센터~가좌역 구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가 지난 2009년부터 경의선 숲길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나. 사업추진 1단계인 대흥동 구간이 2012. 2. 28에, 2단계인 도화동~연남동 구간이 2015. 6. 27에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되었으나 서울시의 공원관리가 청소나 단순 보수 등의 기능에 그치고 있어 쉼터공간, 사색공간, 문화예술공간 등 종합적인 녹색문화 공간으로써의 시민 눈높이에 맞춘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다. 따라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는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권을 마포구에 위임해 줄 것을 서울특별시에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임.

3. 이송처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특별시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위임관리 이전 촉구 건의안

서울과 신의주를 연결하는 복선 철도인 경의선은 지난 1906년 완공되어 그간 우리 나라의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많은 여객과 화물 수송을 분담해왔으나, 1999년부터 시작된 전철화 사업에 따라 마포와 용산 구간이 지하화되어 지상은 유휴 부지로 남게 되었다.

“경의선숲길” 공원은 수명을 다한 경의선 옛 폐선 공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녹색 선형공간으로 제1단계인 대흥동 구간이 2012. 2. 28에, 제2단계인 도화동 ~ 연남동 구간이 2015. 6. 27에 주민에게 전면 개방되어 앞으로 많은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사랑받는 공원으로 탈바꿈 될 것이다.

녹지가 부족했던 지역의 녹지경관을 크게 향상 시킨 것은 물론, 산책로와 자전거 길 조성 및 운동시설과 테마가 있는 편의시설, 광장 등을 설치하고 또한 인근 직장인과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공연을 할 수 있는 주민 휴식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사업이 최종 완료되면 오랜 세월 기차가 다녔던 철길은 이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된 새로운 녹색 문화 공간의 서울을 대표하는 도심 속 공원으로 변모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밋빛 청사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의선 숲길 공원중 이용자가 포화상태인 동교동 ~ 연남동 구간은 취객 및 애정행각 커플들이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과 특히 그들이 있는 넓은 잔디위에서 텐트를 치고 고기를 구워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등의 행위로 공원 이용자들과 자주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또한, 경의선숲길 공원 6.8km의 선형공원 이용자 중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 및 운동을 나오는 이용자가 많은데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아 공원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끼는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경의선숲길 공원 제1단계(대흥동) 구간을 2012년 3월부터 관리해오고 있지만 공원관리가 단순히 청소와 고장·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기능에 치우쳐 있어서, 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 및 수목관리, 실개천 관리, 청소상태, 애완견 관리, 자전거도로, 화분관리, 쉼터관리 등 공원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원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015. 6. 27에 개장된 제2단계인 새창고개, 염리동, 연남동 구간의 공원 관리 역시 청소, 보수 등 단순 기능의 역할만 하게 되어 쉼터공간, 사색공간, 문화예술공간, 시민참여공간 등 종합적인 녹색문화공간의 역할을 못 하게 되므로 공원 관리권을 마포구에 이관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약, 마포구에 경의선숲길 공원조성 완료에 따른 위임관리 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된 경의선숲길 공원은 효용가치가 떨어져 이용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원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는 예산지원 및 운영관리권을 마포구에 위임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 한다.

1. 서울특별시는 경의선숲길 공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원의 관리 권한을 마포구에 이전 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1. 서울특별시는 경의선숲길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마포구에 지원하라.
1. 서울특별시는 경의선숲길 공원 운영의 이용주체인 40만 마포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라.

2015. 8.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일동